

■ 격돌! 4·9 총선 현장

‘동정론’ VS ‘개혁공천 당위성’ 충돌

무안·신안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함으로써 18대 총선 최대 관심지역 가운데 한 곳으로 떠올랐다. 무안·신안은 김 전 대통령의 고향이자 지난 30여 년간 동고동락의 정신적 뿌리 역할을 해 온 지역으로서,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김 의원에 대한 ‘동정론’과 공천개혁의 ‘당위성’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통합민주당은 한국 정당정치의 본가이며 민주화를 이룩한 산실이기도 하지만, 저에게는 아버지(DJ)를 모시고 동고동락해온 정치적 보금자리”라며 “반드시 선거에서 이겨 당의 뿌리를 지키고, 아버님을 비롯한 민주당 선배 정치인들의 명예를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통합민주당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공천자로 확정된 황호순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은 ‘무안·신안을 확 바꿀 깨끗한 새 인물’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황 전 부총장은 “민주당의 공천은 부정과 부패를 추방하고 새로운 무안·신안을 건설하라는 지역민의 염구를

■ 무안·신안 출마 예정자

						
이름	황호순	고기원	서성중	강성현	김홍업	이윤석
나이	59	56	43	42	57	48
소속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평화통일가정당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경력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전 제3보병사단장	평화통일가정당 총재상임 특보	제17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제7대 의원	제17대 전남도의회 의장

김홍업 “DJ 명예 지킬터” 황호순 “깨끗한 새 인물”

이윤석 “세일즈 의원 될 것”... 고기원·서성중씨도 분주

한 명령”이라고 말했다.

이윤석 전 전남도의회 의장도 5, 6, 7대 도의원을 지내며 닦아놓은 탄탄한 지역기반을 무기 삼아 무소속 출마를 공식화하고 표밭갈이에 나서고 있다. 이 전 의장은 “특정 정당의 후보를 찍기보다 지역을 위해 일할 인물을 선택해 주도록 호소하겠다”며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부처를 찾다니는 세일즈맨 국회의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에서는 육군 장성 출신인 고기원 대전대 교수가 선거사무소를 열고 표밭갈이에 나서고 있다. 이 전 의장은 “특정 정당의 후보가 바닥민심을 다지고 있다.”

이낙연, 경쟁자 없어 3선 낙관

함평·영광·장성

함평·영광·장성군 지역구는 이낙연 의원을 꺾을 만한 대안 후보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낙연 의원의 3선 성공 여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열풍에도 탄탄한 지지기반을 바탕으로 곳곳이 버텨낸데다 현역 프리미엄에 지역정서상 압도적으로 높은 당 지지도를 감안할 경우 누가 나와도 우세한 것으로 지역 정치권은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기초의원들의 탈당 등 ‘반 이낙연’기류가 존재하고 기존 함평·영광 선거구에 인접해 있는 장성지역이 새로 묶이면서 이들 유권자들의 성향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 의원은 어느 때보다 지역구 챙기기에 열심이다. 이미 새로 편입된 장성 11개 읍·면 상가와 규모가 큰 노인당을 한 차례 돌며 바닥민심을 다지고 있다.

이 의원은 “새로 편입된 장성지역의 개발 촉진지구 활성화 방안 등을 비롯해 영광의 조선소 완성·함평 힌우특구지정 등의 현안

■ 함평·영광·장성 출마 예정자

				
이름	이낙연	한남열	김영수	이상선
나이	55	51	59	60
소속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평화통일가정당	무소속
경력	16·17대 의원	전 한나라당 전국위원회 위원	남북통일지도자총연합회 영광군회장	전 육군수관리학교장

새로 편입된 장성 유권자 선택 중대 변수

한남열·김영수·이상선씨 선전 여부 관심

을 챙길 인물임을 적극 알리면 유권자가 판단해 주실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 한남열 후보도 여당 의원을 통한 지역발전론을 내세우며 ‘득표율’을 넘어 ‘금배지’를 꿈꾸고 있으며 평화통일가정당에서는 김영수 후보가 가정의 평화를 기치로 내걸고 지역구를 훑고 있다.

육군군수관리학교장을 지낸 이상선(무소속) 후보의 선전 여부도 관심거리. 이 후보는 “지역내 지지기반을 바탕으로 ‘바람’을 일으키겠다”면서 “타 후보들과 달리 지역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줄 후보임을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전·현 의원 ‘3선 싸움’ 흥미진진

장흥·강진·영암

장흥·강진·영암 선거구는 본선이나 다른 없는 치열한 당내 예선을 치른 뒤 한숨을 돌리며 3선 고지를 노리고 있는 현역인 유선호 의원에 유인학 전 의원이 공천 결과에 불복, ‘본선에서 불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형국으로 진행되고 있다.

영암 출신 전·현직 의원의 맞대결로 압축되는 가운데, 다른 후보들이 추격하는 상황이라는 게 지역 정치권 평가다.

유선호 의원은 일찌감치 공천권을 따낸데다 지역 내 탄탄한 조직력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15대·17대에 이어 3선 고지에 오르겠다는 각오로 표밭을 일구고 있다.

유 의원은 “이번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치에 대한 비전을 보여줘야 할 때”라며 “지난 4년간의 의정 활동을 바탕으로 흑색선전·인신 공격 등의 낡은 정치 대신 투명한 선거운동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다가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 장흥·강진·영암 출마 예정자

						
이름	유선호	채경근	김종열	강성재	곽동진	유인학
나이	54	53	46	45	44	68
소속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평화통일가정당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경력	15·17대 의원	한나라당 전남도당 자문위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일본 미에현 지역회장	광주비엔날레 해외 명예홍보대사	대한통합민주당 서남해안 개발지원 특위 위원장	13·14대 의원

유선호 “투명한 정치” 유인학 “잘못된 공천 심판”

채경근·김종열·강성재·곽동진씨도 표밭갈이 나서

유인학 전 의원의 무소속 출마로 여의도 행 티켓을 잡겠다는 각오다.

한나라당 채경근 후보와 평화통일가정당 김종열 후보, 강성재(무소속) 후보, 곽동진(무소속) 후보 등이 얼마나 선전할지도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민화식-김영록 행정전문가 대결

해남·진도·완도

해남·진도·완도는 기존의 강진·완도 선거구가 분리되면서 완도가 해남·진도 선거구에 합쳐지는 바람에 현역 국회의원 2명과 전직 국회의원, 전직 전남도 부지사, 전직 군수 등이 치열한 경쟁을 벌여 격전지로 분류됐다.

민주당 공천자로 확정된 민 전 군수는 두 번 군수를 지내며 쌓은 인맥과 조직 그리고 친화력을 내세워 표심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민 전 군수는 “가대 여당이 될 한나라당을 견제하기 위해선 강력한 야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유권자들에게 얼마나 알려지는가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일하는 국회의원, 깨끗한 정치라는 슬로건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뒤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김영록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참신한 이미지와 함께 행정자치부 국장과 완도·강진 군수를 역임한 풍부한 행정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부지사 시절 해남

■ 해남·진도·완도 출마 예정자

					
이름	민화식	설철호	이민호	김영록	최덕길
나이	68	57	41	53	67
소속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평화통일가정당	무소속	무소속
경력	관서 곡성·강진·화순·해남군수 역임	한나라당 해남·진도·완도지역협의회 운영위원장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해남회장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	통일연구협회 연구위원

민화식 ‘인맥·친화력’ 강점, 김영록 ‘인물론’ 승부

설철호·이민호·최덕길씨 출사표 바닥민심 호소

과 진도지역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는 점을 내세우며 3개 군을 공략하고 있다.

김 전 부지사는 “잘못된 공천을 바로잡기 위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며 “자금과 조직력이 앞선 상대와 싸워야 하지만, 대의명분과 인물론에서 앞서 있는 만큼 유권자들이 지지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에서는 설철호 전 호남교육신문사 사장이 지지를 호소하고 있으며 평화통일 가정당의 이민호 후보와 무소속의 최덕길 통일연구협회 연구원이 각각 출마를 선언했다. /홍행기자 redplane@



광주MBC 문화방송 후원 행사

행선·장가피

광주/진도/북·유명여행사 판매, 광주MBC 문화방송 사무실

무안 + → 황주 황산 칠향		무안 + → 장사 장가피 칠향	
2008년 4월 17일 ~ 21일 1박 2일	1박 2일	2008년 4월 22일 ~ 24일 2박 3일	2박 3일
1인	₩128,000 (₩128,000)	1인	₩128,000 (₩128,000)
2인	₩256,000 (₩256,000)	2인	₩256,000 (₩256,000)
3인	₩384,000 (₩384,000)	3인	₩384,000 (₩384,000)
4인	₩512,000 (₩512,000)	4인	₩512,000 (₩512,000)
5인	₩640,000 (₩640,000)	5인	₩640,000 (₩640,000)

문의: (062) 226-6070